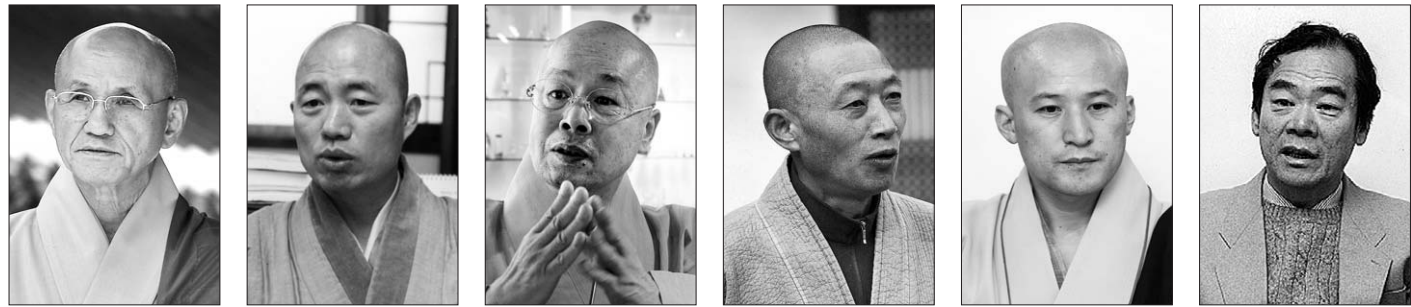


‘진짜 필요한 것’ 부터 도우며 ‘세계일화’ 실천

불교계 NGO단체들의 국제구호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체를 이끄는 리더들의 원력과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직책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닌 몸소 활동가적 기질을 발휘해 사업을 이끌어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선부르게 포교를 위해 활동을 하거나 단순히 자본만 투자해 구호활동을 벌이지 않는 것이었다. 구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순전히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호 대상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노력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실현하는 불교계 대표 구호단체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해외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살’들을 만났다.



월주 스님, 성관 스님, 목탁 스님, 영봉 스님, 유수 스님, 이근후 박사.

◇ 월주 스님(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2004년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하고 캄보디아, 케냐,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등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사업, 먹는물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국제개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 생명의 우물 1000프로젝트 사업을 벌여 800여개의 우물을 조성하는 등 전염병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공생유치원을 개원하고 울란바토르 12곳에 우물을 파는 사업을 진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만 2년 역임한 조계종단의 원로인 그가 이 같은 지원에 나서게 된 계기는 출가 50년 동안 행정업무 중 제3세계 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나서 부터였다. 세법 75세로 노익장을 과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인으로, NGO단체의 대표 지도자로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고 있다.

스님은 지구촌공생회 활동 뿐만 아니라 1980년 후반부터 10여년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북 사업을 통한 남북교류에 기여했다. 2003년에는 ‘지구촌 공생회’를 창립하여 빈곤국가 돕기 운동과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성관 스님(로터스월드 이사장)

로터스월드 2대 이사장인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은 2006년 캄보디아 시엠립에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아동센터(BWC)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1996년 캄보디아를 처음 방문한 이후 내전의 상처를 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캄보디아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스님은 이후 ‘반드시 기회가 되면 이들을 돕겠다’고 서원을 세운 뒤 2003년부터 Beautiful World of Cambodia(BWC) 사업 계획을 세웠다.

◇ 목탁 스님(미얀마문화원 공동대표)

서울 혜은정사 주지인 목탁 스님은 한·미얀마교류친선협회의 공동회장임과 남방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미얀마문화원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미얀마 문화원은 양국의 종교·경제·보건·사회·문화·예술 등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단체로 상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스님은 1992년 미얀마를 방문해 고아원에 생필품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미얀마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우연히 미얀마를 방문했던 스님은 국민들의 불교에 대한 열정에 감탄, 미얀마에 대해 공부하게 됐고, ‘상좌부 불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외국인 최초로 미얀마 양곤불교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불교가 신앙이 아닌 생활로 자리 잡은 미얀마인들을 좋아하게 된 스님은 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를 창립, 미얀마 여러 지역에 사찰봉사를 지원하고 소수민족 고아원을 6여 년을 운영해왔다. 또한 2004년 미얀마를 방문해 정부로부터 수도 양곤시 동부지역 신시가지에 1만 여평 규모의 불교기술종합대학 설립을 허가받아 2005년에 완공, 미얀마 극빈층 아이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 영봉 스님(네팔 세종한국문화외국어교육원 원장)

영봉 스님은 20여 년간 히말라야 등지에서 정진하며 미얀마 난민 돕기 운동을 펼쳐 왔다. 스님은 평소 네팔지역에 한국 문화와 언어, 불교를 널리 알리는 한국어 학교를 설립하려는 열의가 있었다. 공주 신원사 주지 지성 스님과 네팔의료봉사단 이근후 박사 등의 도움으로 2008년 12월 개원해 3개월 과정의 제1기 한국어 강좌를 진행했다.

스님은 20여 년간 히말라야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로 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무료 한국어 학당을 열었고 한국어교사로 활동 중이다. 한글 교육원은 네팔 현지인들에게 한국어와 역사 등을 교육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성지순례나 트레킹 등반 등을 위해 네팔을 찾는 한국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레킹과 여행 가이드, 셸과 등에 종사하는 현지인들과 빈곤층 무학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를 위해 교육원은 한국어 영어 네팔어로 구성된 교재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현지 규정 때문에 약간의 수업료를 받지만 전액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등 현지인들을 위해 지원을 아

◇ 유수 스님(정토회 대표)

정토회는 법륜 스님이 1988년 서울 흥제동 정토포교원에서 정토원을 설립하면서 시작했다. 1990년 현 한국JTS의 모태가 되는 정토회 국제사업부를 설립했으며, 문경에 정토수련원을 개원했다. 이어 1994년 미국과 인도에 JTS를 설립, 같은 해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을 사단법인으로 재 창립했다. 1998년 정토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인도에서 국제 워크캠프를 진행했다. 2000년 인도 지바카에 병원을 개원하고 몽골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01년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북한지원사업과 빈그릇운동 등도 펼치고 있다.

유수 스님은 2002년 당시 정토회 대표인 법륜 스님이 지도 법사로서만 활동하게 되면서 대표직을 맡게 된다. 유수 스님은 새 대표로 추대돼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외불교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 현재 스님은 국제구호 민간기구인 한국 JTS와 국제 평화, 인권, 난민 지원센터인 좋은벗들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근후 박사는 정년퇴임 후 사단법인 ‘가족이카 데미아’도 만들었다. 연구, 조사, 교육과 더불어 사회봉사팀 ‘네팔캠프’를 이끌고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모든 일정이 의료봉사단으로 짜여진 건 아니고 참가자들이 네팔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현지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 이근후 박사(네팔의료봉사단)

이근후 박사는 정년퇴임 후 사단법인 ‘가족이카 데미아’도 만들었다. 연구, 조사, 교육과 더불어 사회봉사팀 ‘네팔캠프’를 이끌고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모든 일정이 의료봉사단으로 짜여진 건 아니고 참가자들이 네팔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현지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화여대 정신과 교수이자 불교상담개발원을 역임한 이근후 박사(74)는 40년 동안 정신과 치료와 봉사활동을 수행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불교계 슈바이처다.

1982년 네팔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그는 이후 매년 한두 차례 네팔을 방문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이근후 박사가 이근 모임인 네팔 이화의료봉사단은 1989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무대를 넓혔고, 2007년 이후에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연 2차례 의료봉사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이화해의의료봉사단은 그동안 총 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이화의료원으로 초빙해 무료 수술을 시행하는 등 활발한 해외봉사활동으로 보건의료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 ‘한미합의의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근후 박사는 정년퇴임 후 사단법인 ‘가족이카 데미아’도 만들었다. 연구, 조사, 교육과 더불어 사회봉사팀 ‘네팔캠프’를 이끌고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모든 일정이 의료봉사단으로 짜여진 건 아니고 참가자들이 네팔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현지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근후 박사 byuhng@buddhapia.com



낙태.유산 무보시 동참 위령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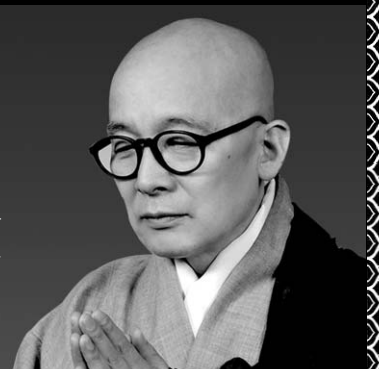
아가야! 미안하다...

세상물과 저지른 일... 지금 참회합니다.

10,800원의 행복 (참화와 가벼움)

- 이행사는 10년만에 하는 단 한 번의 특별행사입니다. 꼭 동참하세요.

당 사찰은 10년간 낙태, 유산된 태아의 슬픈 넋을 위로 하기위해 매년 4회 이상 49재 형식으로 위령재를 봉행 해오던 곳입니다. 200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명경시에 대한 경중과 참회의 계기와 낙태유산 경험자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고자 특별행사를 마련케 되었습니다. 1번의 참회에 100원의 정성으로 108번 참회를 통하여 10,800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무보시도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그간 급진적인 시간적인 이유로 못한 분을 위해 전 목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자비의 정신, 불살생의 정신, 실천의 정신을 기리며...



백운사 주지 지산스님

초종교적 위령재 동행

- ▶대 상 : 낙태·유산 경험자 남녀 종교불문 (타종교도 존중합니다)
- ▶형 식 : 49재 천도익시(우리말 대중형식으로 스님들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 ▶준비물 : 1번 참회에 100원 108참회=10800원뿐 / 분유, 배냇저고리, 장난감 등 (위령재 후 전국 미혼모 시설 등에 전량 기부)
- ▶일 정 : 입재_ 2009년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회향_ 2009년 6월 24일
- ▶신 청 : 전화 및 내방,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대인불교조계종 백운사 금강산건봉사포교원 **www.bwjisan.com** ☎(02)979-0108, (02)971-1544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 개강일 : 5월 6일(수요일), 5월 8일(금요일)
- ▶ 교육 기간 : 6주 (24시간)
-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 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 날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가출, 습관, 성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